현대모비스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연구개발(설계)

**1. 지원한 직무에 대한 강점과 이를 회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고자 하는 직무는 설계입니다.

설계 직무에 대한 저의 강점은 공학에 대한 10점 만점의 열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 제 사주팔자를 보신 적이 있는데 무속인 분이 말씀하시길 ‘얘는 무조건 공대생이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공학분야에 대해서만큼은 10점 만점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학과에서 수석을 2년 연속 차지할 정도의 집중력으로 공부에 매진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전공이 다른 기계공학과 및 전자공학과 학생과 기숙사 룸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서로의 기초적인 전공분야에 대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다보니 흥미가 생겨서 별도로 타과과목을 공부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서울시 대기오염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앤다면 서울의 공기가 약 3배만큼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제가 가진 집중력과 열정으로 HBMS 및 전기구동모터 등의 친환경 부품 개발 및 설계에 주력하여, 마음 속에만 그리던 먼지없이 깔끔한 서울의 하늘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실현하고 싶습니다.

**2.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례와 이를 통해 느낀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테러리스트에서 패셔니스타로**

 저는 옷을 잘 입지 못해서 옷을 잘 입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옷을 사도 막상 입으면 멋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 전역 후 패셔니스타가 되어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문 끝에 상상univ에서 하는, 패션감각을 기르기 위한 Upstyle class라는 수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갔을 때는 패션감각이 출중한 친구들도 있고 옷을 못입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매주 진행된 수업에서는 색종이로 어울리는 색깔 찾기, 자세 교정하기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동대문시장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옷을 살 때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옷을 샀음에도 나중에는 산 옷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아깝고 패션 감각이 부족함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수업 마지막 주에는 가장 자신있는 패션으로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런웨이에 섰을 때의 그 자신감과 희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쇼가 끝난 뒤 담당자 분께서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며 칭찬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면 배우지 못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3. 조직내 이해관계가 상충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 간의 갈등 중재⁃해결>**

 군 복무 시절 중대 대표병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 대표병은 각 소대의 분대장과 관심병사 그리고 소대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당시 중대에는 소대별 임무에 따라 야간당직이 필수인 소대(이하 A소대)와 야간당직이 필수가 아닌 소대(이하 B소대)간에 불침번 근무 횟수를 놓고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A소대는 ‘야간당직을 하므로 불침번 근무 횟수 일부를 B소대에게 더 할당해달라’, B소대는 ‘불침번 근무 일부 전가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A소대보다 주간에 하는 업무로드가 크다’며 서로 간의 언성을 높인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불침번 근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소대 분대장을 모아서 다른 소대의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교차근무를 시켜보자고 분대장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소대의 소대장님, 행정보급관님, 중대장님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업무로드가 집중되어 불침번 갈등이 가장 깊었던 상병, 일병 계급자를 대상으로 교차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각 소대에서는 불침번 근무 횟수를 두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들었습니다. 소대 간의 업무가 상이하여 완벽하게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간의 업무를 경험해봄으로써 상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개선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부 이원화, 송달에 날개를 달다>**

 군대에서 제가 속한 소대의 임무는 22대의 fax로 들어오는 문서를 관리하고, 건물 지하부터 지상 10층에 있는 부서로 송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이 하루에 적을 때는 700장에서 많을 때는 1000장까지 됩니다. 중요한 문서는 fax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송달을 해야 하고 문서를 전해드릴 때는 반드시 기록부에 수신자의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기록부는 통신망 별로 하나씩 있는데, 문서를 갖다드리러 간 사이 중요한 문서가 fax로 들어오면 기록부가 없어서 가져다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드시 기록부가 하나여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신량이 많은 통신망의 경우에 기록부를 하나를 더 두어서 기록부 하나가 없더라도 신속하게 송달할 수 있도록 기록부를 2개로 관리하는 것을 소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월 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여 fax소통량이 하루에 3000장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때 두 개의 기록부 중 하나를 천안함용으로 바꾸어 써서 중요한 문서도 바로 갖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천안함 관련보고를 드릴 때에도 모든 기록을 찾아볼 필요 없이 천안함용 기록부만 참고하여 빠르게 보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천안함 일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소대장님께 기록부를 2개로 만든 것을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